인문연구 제9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7, No. 1, pp.211~247
http://dx.doi.org/10.21211/JHUM.97.8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남영희* · 이순욱**

〈차 례〉

1. 들머리
2. 한국 근대 음악교육의 전통
  1) 사립학교 음악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2) 민간음악단체와 전문학원의 음악교육
3.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의 지향점
  1) 부산음악학교의 변전(變轉)과 고등교육의 지향
  2) 부산음악연구소와 음악교육의 대중화
  3) 부산사범학교의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와 음악교육의 내실화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 근대 음악교육의 전통을 개관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해방기 부산의 음악교육기관의 설립과 음악교육의 지향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기에 발간된 여러 매체의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기사와 광고, 학교 자료, 원로음악가의 회고와 공연 팸플릿 등 실증자료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계 학교에서 시작된 음악교육이 대학교육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일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기 부산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기관의 실체와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방기 부산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음악활동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음악교육기관이 체계를 갖추고 설립·운영되었다. 특히 초등 교원양성을 위해 설립한 부산사범학교에서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를 설치하고 교사를 양성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기관들은 재정난과 한국전쟁 발발로 지속되지 못했지만, 부산지역 음악인들의 교육적 역량과 음악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열정을 가늠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후 음악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로서의 해방기 음악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제껏 국가음악사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의 음악활동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 해방기, 음악교육, 부산음악학교, 부산음악연구소, 부산사범학교 중등음악교사 양성과, 김학성, 배도순

1. 들머리

우리나라의 서양음악 교육은 1800년대 말부터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를 통해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선교와 국민만들기(Nation-building), 계몽의식과 애국심 고취, 음악교양의 고양 등 다양한 목적과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이제껏 한국의 근대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대체로 음악교과의 교육과정과 교수법, 음악교육정책과 교육 요소, 교육이론 들의 변화와 비

교가 중점적인 연구 영역이었다.[1] 주로 공교육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의 역사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식민지시대 공립학교에서 실시한 음악교육과 관련해서는 연구 성과가 폭넓게 구축되었다. 이때 음악교과의 내용과 목표는 근본적으로 식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관련 연구는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와 창가의 가사 분석, 음악교육과 식민성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2] 그밖에 이화학당과 숭실학교, 연희전문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3] 해방기 음악음악교과서와 교재의 해제 및 분석,[4] 음악교육 환경과 미군정기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도

---

1)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권덕원, 「학교 음악 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27, 2004, 27~63쪽; 함희주, 「한국 음악교육의 발전과정-19세기 말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제11-1집, 2013, 125~143쪽; 오지향·문경숙·최미영,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사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7호, 2014, 187~207쪽.

2) 천영주, 「일제 강점기의 음악교과서 연구」, 『음악과 민족』 제13호, 민족음악학회, 1997, 212~229쪽; 신계휴, 「일제하 국민학교령기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우타노홍의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18-1, 2001, 117~131쪽; 박선희, 「명치창가에 나타난 근대 '신민만들기' 양상-『소학창가집』의 음악적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36, 2010, 185~205쪽; 김순전 외 여럿, 『제국의 식민지 창가: 일제강점기 창가 교과서 연구』, 제이앤씨, 2014.

3) 노동은,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0집, 2004, 65~117쪽; 허지연, 「이화여자전문학교 선교사 음악교사 연구: 연합감리회 아카이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음악학』, 2013, 91~123쪽; 김사랑, 「1920~30년대 음악 전문여성선교사-미북장로교 선교부 파송 주요 선교사를 중심으로」, 『음악학』, 제24-2집, 2016, 7~58쪽; 민경찬, 『숭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7, 24~31쪽.

4) 김기복, 「해방공간의 음악교육 연구: 음악교육 정책과 음악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목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권혜근, 「해방공간의 음악교과서-『중등음악교본 1』, 『중등음악교본 2』의 해제」, 『근대서지』 제7호, 2013, 166~177쪽; 이경분, 「해방 직후의 음악교과서 『임시중등음악교본』(1946)의 해제」, 『근대서지』 제16호, 2017, 340~348쪽.

활발하게 진행되었다.[5]

그러나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여전히 다가서야 할 지점이 많다. 가령 식민지시대 이화여전 음악과와 더불어 여성 음악교육을 시행했던 근화여학교,[6] 경성음악전문학원,[7] 조선정악전습소[8]와 연악회, 해방기 이정상(李定商), 안기영(安基泳), 박태준(朴泰俊), 윤극영(尹棘榮)이 관여했던 서울음악전문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연구 성과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지역의 음악교육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더욱 부진한 실정이다. 가령, 해방기 부산에는 바이얼린의 집, 성악연구소, 피아노연구소,[9] 부산사립음악전문학교,[10] 신흥대학교 부산예술과, 부산음악학원, 부산음악전문학교, 부산음악학교[11] 들의 다양한 음악교육기관이 설립·운영되었다. 그러나 원로 음악인의 회고에만 기대고 있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12] 교육기관의 정확한 명칭, 그리고 유사한 명칭들 사이의 관계 또한 명확하게 규명하지

---

5) 고성휘, 「해방공간의 음악교육적 환경에 관한 소고」, 『음악평론』, 2000, 11, 5~22쪽; 신계휴, 「미군정기 초등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3-1, 2004, 127~143쪽; 문경숙, 「미군정 시대의 한국 음악교육 실태: 1945~1948」, 『음악교육연구』 제43권 제3호, 한국음악교육학회, 2014, 21~46쪽.

6) 조윤영, 「음악을 통해 근대여성을 꿈꾸다」, 『인문과학연구』 27집, 2018, 131~154쪽.

7) 노동은, 「'경성음악전문학원'은 어떤 학교이었나?」, 『음악과 민족』 19집, 2000, 122~134쪽.

8) 박은경, 「한국최초의 민간음악교육기관 조선정악전습소 연구」, 『음악과 민족』 21집, 2001, 161~182쪽.

9)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288~289쪽.

10) 곽근수, 「부산서양음악 30년사 I : 사회사적 입장에서」, 『음악과 민족』 창간호, 민족음악연구소, 1991, 209쪽.

11) 제갈삼은 몇몇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이들 기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78~79쪽.

12) 박형태, 「음악계의 뿌리와 맥」, 『산여울』 제7집, 부산전문대학, 1986, 35~38쪽.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 음악교육의 전통을 개괄하고, 해방기 부산에서 설립·운영된 음악교육기관의 존재와 음악교육의 지향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들 기관의 내부 자료가 없어 운영 실태나 커리큘럼, 졸업생 배출 현황 들은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 신문매체의 학생모집 광고와 기사, 학교 자료, 잡지 들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음악교육기관의 정확한 명칭, 교수진용, 개설과목 들을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전문음악인을 양성하고자 했던 해방기 부산 음악인들의 역량과 지역의 서양음악 교육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으며, 국가음악사에서 배제된 해방기 지역 음악사회의 활동과 음악교육에 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13]

2. 한국 근대 음악교육의 전통

1) 사립학교 음악교육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우리나라 서양음악 전문교육의 뿌리는 기독교계 학교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1885년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a)가 설립한 배재학당, 1886년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경신학교, 같은 해 스크랜톤(Mary F. Scranton)의 이화학당 들을 필두로 여러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초기의 음악교육은

13) 이 논문에서 음악은 국악을 제외한 서양음악에 한하며, 해방기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기간을 말한다. 공교육으로서의 초·중·고교 음악교육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부산사범학교에 중등학교 교원양성 과정이 개설되어 전문음악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인 사례이므로 논의에 포함하였다.

찬송가 가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주로 선교사 또는 선교사 부인으로 음악을 전공한 정식 교사가 아니었다. 1897년 미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가 평양에 설립한 숭실학교는 음악을 선택이 아닌 필수교과로 삼았으며, 기독교계열 학교 중 처음으로 대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음악을 전공한 선교사를 여럿 두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실시[14]함으로써 우리나라 1세대 서양음악가로 불리는 음악인들을 다수 배출하였다.[15]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전문교육은 제도적 차원의 고등교육으로 이어졌다. 1925년 이화학당 대학과의 전문학교 승격이 바로 그것이다.[16] 예과 1년, 본과 3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음악과는 첫해 예과에 1명, 본과에 2명이 입학했다. 이들은 대개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개성 호수돈여자보통학교, 정신여학교 졸업생이 주를 이루었다.[17]

근화여학교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중앙보육학교, 경성보육학교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음악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근화학원은 차미리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 운영한 여성교육기관이다. 1924년 기관을 확장하면서 음악과를 신설하여 음악과와 기악과를 두었으며, 근화 코러스와 오페라단 조직을 계획했다.[18] 1925년 8월 근화여학교로 인가된 이후,[19] 1933년 실업학교

14) 민경찬, 앞의 책, 24~31쪽.

15) 김인식, 김형준, 박윤근, 김인환, 김영환, 이성식, 김형직, 이두산, 박경호, 독고선, 차재일, 김태술, 박태준, 현제명, 계정식, 김세형, 안익태, 박태현, 강신명, 김영길, 최성두, 조순천, 김해송, 이용준, 김동진, 이인범, 최성진, 이유성, 전봉초 등이 대표적이다.

16) 이화학당 대학과에서도 음악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 과정이 전문학교로 승격하여 제도화됨으로써 여성이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도 음악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7) 「조선에 처음 생긴 리화녀자전문학교」, 『조선일보』, 1925.4.10, 3면.

18) 「근화학원 확장, 음악과도 신설」, 『동아일보』, 1924.3.14, 2면. 근화 코러스의 활동 기록은 찾아볼 수 있으나 근화오페라단은 확인할 수 없다.

로 변경하기까지 음악전문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교수진으로는 독고선, 채규엽, 이광준, 유수만 들이 참여했다.[20] 중앙보육학교와 경성보육학교에는 나운영, 현제명, 계정식, 독고선, 이흥렬, 홍난파, 김원복 들의 명망 있는 음악인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이들 학교는 정기적으로 음악회와 지방 순회연주회를 개최했을 정도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교재를 발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음악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21]

해방 이후에는 음악 고등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방 전 현제명이 설립한 경성음악학교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발전했다. 전공학과로서 음악대학이나 음악과를 두지 않고 각기 다른 전공 학생들이 모여 음악부를 구성하여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쳤던 연희전문학교는 1948년 박태준이 제4대 음악부 교수로 취임하면서 교육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명신여학교는 1945년 11월 숙명여자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나, 1948년 5월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문학부에 음악과를 두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946년 8월 인가를 받아 1947년 한림원, 예림원, 행림원의 3개 단과대학 9개 학과로 개편되었다. 음악과는 미술과와 더불어 예림원에 속했으며, 피아노, 성악, 현악, 작곡의 4개 전공을 두었다.[22]

미군정 학무국에서도 관립음악학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45년 11월 미군정 학무국 음악계에서 실시한 서울지역 음악교육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난 음악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

19) 「근화여교 29일부로 인가」, 『매일신보』, 1925. 8.30, 2면.
20) 조윤영, 앞의 논문, 138~140쪽.
21) 여기에 관해서는 고(稿)를 달리해 논의할 예정이다.
22) 안미자, 「해방 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과과정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제25집, 2001, 112쪽.

자리에서 매년 100명의 전문음악가를 배출할 수 있는 관립음악학교 설립을 제안하였다.[23] 그만큼 음악인 양성이 당시 음악교육에서 시급한 과제였던 셈이다. 해방 이후 최초로 전문음악인 양성을 위한 국립교육기관의 설립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관련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워 이 학교가 실제로 설립·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민간음악단체와 전문학원의 음악교육

조선의 전통가무를 계승하기 위해 1909년 설립한 조양구락부에서도 서양음악 교육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조양구락부는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로 전환되어 1918년까지 운영되었다. 조양구락부에는 구가(舊歌), 구악(舊樂)과 더불어 풍금, 사현금(바이올린), 악리로 구성된 신악(新樂)을 함께 두어 전통음악을 계승하는 한편 서양음악을 수용·발전시키고자 했다.[24] 수업연한은 1년이었으며, 수업시간은 성악 전공자는 주 6회, 기악전공자는 주 5회였다. 졸업생으로는 함화진(서양악과 악리), 이상준(조선악과 가곡 남창), 하대홍·홍영후(서양악과 성악, 4현금) 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홍영후는 음악교사 김인식이 1915년 퇴직한 후 3년 동안 교사로 활동했다.[25]

난파 홍영후가 1922년 창립한 연악회도 "사립 음악학교의 기초"

---

23)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1945~1948)』 상, 홍지원, 1992, 80쪽.

24)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박은경, 「한국 최초의 작곡가 김인식 연구」, 『음악과 민족』 제19집, 2000, 11~37쪽; 박은경, 「한국 최초의 민간 음악교육기관 조선정악전습소 연구」, 『음악과민족』 제21집, 2001, 161~182쪽; 박혜정, 「서양음악의 전래와 수용」, 『국악교육』 제23집, 2005, 231~266쪽; 신경숙, 「근대 초기 가곡 교습: 초기 조선정악전습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47집, 2007, 213~245쪽.

25) 박혜정, 앞의 논문, 254~256쪽.

를 표방하였다.[26] 회원 수가 60여 명에 이르자 1924년 새문안예배당 내 건물을 신축했으며,[27] 바이올린, 만돌린, 풍금, 피아노과를 두고 개인교습을 실시했다.[28] 1929년에는 인천, 개성, 김해에 지부를 설치하여 인천과 개성은 홍영후가 출장 교수하고, 김해는 이규환이 담임교수를 맡았다.[29] 지부를 두었을 만큼 연악회의 활동 범위와 규모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1931년 홍영후의 도미로 홍성유가 바이올린, 김원복이 피아노를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30]

일본, 러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음악인들이 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러시아 피득(彼得, 페테르부르크-필자)대학 예술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김동한이 설립한 예술학원에는 음악, 춤, 연기 수강생이 백여 명에 달했으며,[31] 베셴스크 음악전문학교를 졸업한 우시욱도 강습소를 열고 개인교습 방식으로 성악을 가르쳤다.[32]

이와 달리,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한 기관으로 경성음악전문학원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습소나 학원 차원을 넘어 음악전문교육의 지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첫 사례다. 동양음악학교를 거쳐 1920년부터 1937년까지 독일에서 유학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김재훈이 1937년 귀국하여 정동정 25에 설립한 경성음악전문원이 전신이다. 이듬해 학원으로 인가받아 경성음악전문학원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교직원을 증원하였으며, 예과, 전수과, 본과의 3부에 전공은 성악과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기

---

26) 「연악회관 준공, 오늘부터 개학」, 『동아일보』, 1924. 11. 3, 5면.
27) 「연구회관 신축」, 『조선일보』, 1924. 11. 4, 3면.
28) 「연악회 학생모집」, 『조선일보』, 1925. 4. 2, 2면.
29) 「연악회 확장, 세 곳에 지부 설치」, 『동아일보』, 1929. 9. 4, 2면.
30) 「홍김 양씨를 위임 연악회를 속개」, 『동아일보』, 1931. 9. 2, 4면.
31) 「예술학원의 무도(舞蹈) 음악 6월 2일에 개회」, 『동아일보』, 1923.6.1, 3면.
32) 「음악과 노어 강습소를 신설, 임시사무소를 관수동에」, 『조선일보』, 1924. 4.11, 3면.

악과로 구분하였다.[33] 초기 교수진은 김재훈(작곡・독일어・바이올린), 안기영(성악), 이승학(악전・성악), 안성교(음정・청음・바이올린), 청수간삼(淸水幹三, 피아노), 김태연(첼로), 김관(음악사) 들이었다. 1938년 4월 개원 당시 60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34] 1941년에는 김재훈, 안기영, 안성교, 이승학 외 테너 최창은, 평간문수(平間文壽), 은하수(殷何水), 한갑수(바리톤), 이송락, 피아노 조옥윤, 평간백합자(平間百合子), 이흥렬, 피아노 겸 작곡 박경호, 소프라노 이관옥, 클라리넷 이건호, 김재원 들의 교수진 16인을 두었다.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는 권영호, 권진원, 김경훈, 김형래, 박원희, 유은경, 이계성, 이춘성, 장기정, 정미리 들이 있으며,[35] 첼리스트 전봉초, 테너・대중가수 윤부길도 이 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36] 경성음악전문학원은 교육활동 외에도 교수진과 재학생들의 연주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김재훈은 독일에서 작곡가와 연주가로 입지를 다졌으며 음악계 안팎의 존경을 받은 음악인이었으나,[37] 태평양전쟁기 현제명의 등장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성음악전문학원은 1942년 후반 폐교에 이르게 된다.[38] 1945년 12월 김재훈은 한길, 박경호, 서항석, 김연희, 이혜구, 채정근 들과 결합하여 노량진에서 음악학교를 새로 설립하고자 했으나,[39]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선음악가동맹 위원장으로 활동했지만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 생을 마감하였

33) 「음악전문학원 경기도에서 정식 인가」, 『동아일보』, 1938.2.19, 2면.
34) 「경성음악전문학원 수 정식 인가」, 『조선일보』, 1938.2.22, 6면.
35) 노동은, 앞의 논문, 128~133쪽.
36) 이상만, 「한국음악백년, 일화로 엮어본 이면사(43)-김재훈의 '경성음악전문학원'」, 『경향신문』, 1986.9.11, 10면.
37) 계정식, 「악인 김재훈을 추모하며」, 『조선일보』, 1958.1.17, 4면.
38) 노동은, 앞의 논문, 123~126쪽.
39) 「우리 음악부흥 음악학교 창립」, 『동아일보』, 1945.12.13, 2면.

다.[40] 경성음악전문학원의 맥은 김재훈을 도와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성악가 이승학에 의해 서라벌예술대학에 계승되었지만, 서라벌예대가 중앙대학으로 합병되면서 그 자취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41]

한편, 현제명의 경성음악학교는 김재훈의 경성음악전문학원과는 대조적으로 해방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현제명은 경성음악전문학원이 폐교된 이후 1943년 3월 사상범 교화기관인 경성대화숙의 후원으로 경성음악연구원을 설립하여 같은 해 4월 1일 공식적으로 개원하였다.[42] 전공분야는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등 3개 분야였으며, 교수진으로 성악과에 현제명과 김천애, 피아노 김영희, 바이올린 김생려, 작곡과 이론은 김성태가 참여했다. 경성음악연구원은 1945년 말 학무국의 전문학교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방 이후 최초의 음악전문교육기관 경성음악학교가 되었으며, 현제명, 김성태, 계정식, 문학준, 김천애, 이인범, 김원복, 김생려, 이유성, 이춘수, 이흥렬 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했다.[43] 두루 알다시피 이 학교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발전한다.

해방기에 새로 설립된 학교도 여럿이다. 서울에는 음악전문교육기관으로 서울음악전문학교, 중앙음악전문학교, 동양음악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서울음악전문학교는 1948년 4월 “민족음악 건설을 지향”하며 설립되었으며, 피아노과, 첼로과, 작곡과, 바이올린과가

---

40) 노동은, 앞의 논문, 127~128쪽. 김재훈이 한국전쟁기 납북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상만, 앞의 글.

41) 이상만, 앞의 글.

42) 대화숙(大和塾)은 황도정신 진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위해 사상사건 관계자를 선도・보호한 기관이다. 경성대화숙은 여기에 미취학 아동, 무학자, 문맹자, 부녀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강습회, 시국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들을 통해 황민화 교육에도 앞장섰다. 경성음악연구원은 경성대화숙의 황도정신수련도장으로 설치된 것이다.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40쪽.

43) 「최초의 음악전문교 2월 1일부터 개교」, 『동아일보』, 1946.1.6, 2면.

설치되었다.[44] 주소지는 을지로 6가다. 초대 교장은 이정상, 교수진으로는 안기영, 박태준, 윤극영 들이 참여했다.[45] 1949년까지 꾸준히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1949년 3월에는 교비생(校費生) 60명을 선발하였으며,[46] 열차 정기권과 승차권을 발행[47]한 것으로 볼 때 일정 수준의 재정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밖에 서울음악전문학교와 관련한 자료와 기록을 찾기 어려워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앙음악전문학교와 동양음악전문학교 역시 학생모집 광고를 통해 교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의 지향점

근대 부산에는 1891년 베어드가 설립한 소년들을 위한 학교(School for boys of primary grade), 1892년 미오라(Myoora) 고아원, 1895년 호주 장로교 목사 멕케이(J. H. Mackay)의 딸 멘지스(B. Menzies)의 부산진일신여학교,[48] 1897년 어빈 부인(Mrs. Irvin)

---

44) 「서울음악전문학교 5개과를 신설하고 발족」, 『한성일보』, 1948.2.4, 2면. 나중에는 고등사범과가 추가되었다. 「(광고) 서울음악전문학교」, 『한성일보』, 1949.12.1, 1면.

45) 「서울음악전문학교 5과 신설코 발족」, 『한성일보』, 1948.2.4, 2면; 「서울음악전문 교수진용 강화」, 『조선중앙일보(유해붕)』, 1948.4.4, 2면.

46) 「음악전문학교 교비생(校費生)을 모집」, 『조선중앙일보(유해붕)』, 1949.3.3, 2면.

47) 「(광고) 서울음악전문학교」, 『한성일보』, 1949.12.1, 2면.

48) 1892년 멘지스와 페리(Jean Perry)가 데려다 키운 고아집단이 시초다. 1895년 10월, 부산시 동구 좌천동 소재 초가에서 수업연한 3개년의 소학교를 설치하여 멘지스가 교장직을 맡았다. 1905년 4월, 부산시 동구 좌천동 768번지에 교사를 신축하고, 1909년 8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고등과를 신설하였으며, 1925년 고등과가 분리되어 동래일신여학교가 되었다. 노영숙, 「개화기 선교사들의 기독교 교육이 근대 교육문화에 기여

의 야학교 등 기독교계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1906년에는 진주와 마산에도 기독교계 학교가 문을 열었다.[49] 부산·경남지역 기독교 전래와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학교에서도 음악을 교과목으로 가르쳤으며, 주일학교 교재로 찬송가를 사용하는 등 음악교육 활동을 전개했다.[50] 하지만, 이들 학교의 음악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음악전문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식민지 시대에는 김동춘의 성악학원과 김학성의 바이올린 교습소가 운영되었다.[51] 성악학원을 설립한 김동춘은 함경북도 북청 태생으로 동양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바리톤 노영덕이 그 문하생이라고 하나,[52] 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53] 성악학원은 신창동 동본원사(東本願寺, 현 대각사)에 소재한 유치

한 교육적 의의」,『기독교교육논총』 제34집, 2013, 371쪽.

49) 이상규,「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 전래와 교육·의료활동(1880~1910)」,『항도부산』 11, 1994, 201~202쪽.

50) 이상규, 위의 논문; 이상규,「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1880~1900),『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145~177쪽; 이상규,『부산경남지방 기독교회의 선구자들』,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2; 노영숙,「내한 선교사들의 기독교 교육과 의의: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1884~1941)」, 경상대 박사논문, 2012.

51) "바이올린 연구소", "성악연구소"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 명칭은 원로 음악인 박형태의 글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원 또는 교습소로 추측된다. 박형태, 앞의 글, 35~36쪽;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8쪽.

52)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88쪽.

53) 유치원의 학예회 활동은 해방기에도 이어진다. 제2회 부산 유아연합음악회(1948.11.30)는 건국학회 문화부 주최로 부민관에서 상연되었다. 이 공연에는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고명 인사"의 특별찬조 출연이 있어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고 하며, 저속한 연극이 횡행하는 시절에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가 좋은 청량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립부산극장에서 상연된 공립유치원 제4회 음악회(1949.8.3)에서는 아동가극 ≪단심술≫은 "남북 민족이 하로 바삐 뭉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관람하기도 했다. 남영희,「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21.2, 181쪽.

원에 소재했던 것으로 보인다.[54] 대각사는 부산시 중구 신창동 1가 6번지에 소재한 화쟁교단의 중심사찰로, 개항 직후인 1877년 조선에서 최초로 포교활동을 전개한 일본불교 정토진종 대곡파 동본원사의 부산별원이 전신이다.[55] 성악학원이 소재한 유치원은 사립부산유치원으로 추정된다. 1927년 일본인이 쓴 『부산교육오십년사』에 따르면, 일본 거류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1897년 3월 사립부산유치원이 설립되었다.[56] 원아 20명으로 개원하여 그해 5월 동본원사 별원으로 이동하였으며, 프뢰벨식 일본 유치원 방식을 따라 운영되었다.[57] 반면, 김학성이 운영한 바이올린 학원은 "일본 동양음악학교를 만학으로 졸업한 김학성이 1943년 '바이얼린의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설립·운영한 "부산 최초의 교습소"라 한다. 이 교습소를 통해 임만규, 전성태, 김호현 들의 연주자들이 배출되었으며, 문하생을 중심으로 20명 규모의 현악합주단이 결성되기도 했다.[58]

이 시기 일본인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우츠노미야 고조[宇都宮幸三]가 운영한 피아노 학원이 대표적인 예다. 우츠노미야 고조는 1935년 말 부산연합청년단 음악부를 재창립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59] 이 분야의 권위자로 초청된 인물이다. 1936년 첫 연습을 진행했으며,[60] 부산방송국 소속의 1관 편성 관현악단

54) 개항 이후 가장 먼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일본불교와 기독교들의 종교였으며, 그중 일본불교는 가장 먼저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불교 종파들은 한국에서 포교전도를 하는 데서 나아가 식산흥업 장려와 교육, 자선사업, 일본유학 중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55) 김윤정·서치상·이미나, 「개항 이후 일본불교의 침투에 따른 사원의 건립과 건축 특성 개관」, 『건축역사연구』 제21-2호, 2012, 53쪽.

56)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편, 『부산교육사』,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1987, 140쪽.

57) 노동은,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주), 2010, 282~306쪽.

58)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88쪽.

59) 「釜山聯合青年團音樂部, 更生に決定」, 『조선신문』, 1935.12.18, 3면.

60) 「釜山聯合青年團音樂部愈よ復活, 斯界の權威宇都宮氏を迎へ八日第一回練

지휘자로 활동했다.[61] 피아노 학원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인 거주 구역인 서정(西町)에 위치했다. 해방 직전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62] 문하생 가운데는 조선인도 있었다.[63]

해방기 부산에서는 다양한 음악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음악교육의 주체도 다양했다. 이 장에서는 부산음악학교, 부산음악연구소, 부산사범학교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64]

1) 부산음악학교의 변전(變轉)과 고등교육의 지향

1948년 4월 1일 개교한 부산음악학교는 해방 후 부산의 대표적인 음악전문교육기관이다.[65] 미군정에서는 1946년 9월부터 새 학

習會」, 『조선신문』, 1936.2.8, 5면.

61) 박형태의 글에는 이 단체에 조선 사람으로는 현악에 백경준, 전성태, 임문규, 이병우, 윤이상, 관악파트에 김기영, 한이영이 있었으며, 그 밖에 일본인 주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부산시사』도 이에 준하여 서술하고 있다. 박형태, 위의 글, 36쪽;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89쪽. 그러나 정확한 인명이나 인적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아직 발견할 수 없으며, 제갈삼은 임문규와 윤이상이 단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제갈삼, 위의 책, 39쪽.

62)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88~289쪽.

63) 제갈삼은 김수경을 "박형태의 부인"이라 밝히고 있으며, 김수경 외에도 "동래 일신여학교 출신이며 김학성의 이종처제 안정숙(安貞淑)"도 이곳에서 수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갈삼, 위의 책, 38쪽.

64)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한 차례 다룬 바 있다. 남영희, 앞의 논문, 2021.2, 253~267쪽 참조. 이 장은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65) 「학교소식」, 『문예신문』 56호, 1948.5.3, 2면. 부산음악학교와 명칭이 유사한 부산음악학원은 1948년 2월 20일 오후 6시에 개교했다. 「부산음악학원 학생 제군에게 고함」, 『부산일보』, 1948.2.20, 2면. 이 광고 외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설립과 운영의 주체, 교수진, 커리큘럼, 그리고 부산음악학교와의 관계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산음악학교와 부산음악학원은 같은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제를 채택하여 9월 신학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부산음악학교는 4월에 개교하였으니 식민지시대 학제를 따른 셈이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김학성(金鶴成, 1911~1958)이다.[66] 동양음악학교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학성은 해방기부터 1950년대까지 부산음악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연주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했으며, 특히 음악교육에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실천했다.[67] 이러한 공적을 기려 1958년 제2회 부산시문화상에 추서되었다.

부산음악학교는 김학성이 식민지시대부터 축적해 온 음악교육기관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된 음악전문교육기관이다. 개교 전인 1948년 2~3월경에는 "신창동 1의 34 YMBP 가교사"를 주소로 하고 있지만, 개교 후인 1948년 6월에는 "부산부 부평동 가교사 건국학회 내"로 변경되었다. 부산음악학교의 학생모집 내용과 입학 자격도 개교 전후 다소 차이가 있다. 개교 전에는 성악과, 바이올린, 피아노과로 구분하여 각 30명씩을 선발하였으며, 입학 자격은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다. 당시 중등학교가 오늘날 중·고등학교를 포괄했으므로 부산음악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8] 개교 후에는 작곡과가 추가되었으며,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69] 그러나 부산음악학교는 정식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하여 1948

66) 1949년 7월 25~26일 개최된 김학성의 독주회 기사에 김학성은 부산음악전문학교 학장으로 소개되었다. 부산음악학교는 부산음악전문학교의 전신이다. 「김학성씨 제금독주회」, 『민주중보』, 1949.7.14, 2면.

67) 바이올리니스트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에 대해서는 남영희가 처음으로 연구하였다. 남영희,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 『인문과학』 제122집, 2021,8, 199~243쪽; 남영희, 「해방기 김학성의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과 노래의 정전화」, 『한국문학논총』 제88집, 2021,8, 89~136쪽.

68) 「남녀학생모집」, 『부산신문』, 1948.3.7, 2면.

69) 「학생모집, 부산음악학교」, 『부산신문』, 1948.6.19, 1면.

년 8월 학무국에 “공식 설치 인가 수속을 취하지 않은 학교”로 지적되었다.[70]

한편, 동국음악학교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1~2월경 이 학교의 주소지는 “신창동 1의 34 YMBP”로 부산음악학교의 개교 전 주소와 동일하다. “YMBP”는 불교청년회관이므로 동본원사 부산별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71] 수업연한은 4년이며 본과와 별과를 두었다. 본과는 중학 졸업 이상, 별과는 초급중학 수료를 지원 자격으로 두어 본과는 대학 정도의 고등교육, 별과는 고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은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수진과 커리큘럼은 확인할 수 없다.[72]

부산음악학교와 동국음악학교는 1949년 초 병합하여 부산음악전문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때 건국학회의 신년 축하 인사에는 부산음악전문학교가 건국중학교, 보명유치원과 함께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73] 1948년 부산음악학교의 주소지도 “건국학회 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국학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학 자격은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어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공의 편제는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로 구성되었다. 바리톤・평론가 김점덕, 바이올리니스트・지휘자 김학성, 피아니스트・작곡가 박용식, 바이올리니스트 배도순, 첼리스트・작곡가 윤이상, 관악 지휘자 변종택, 테너 김호민, 피아니스트 한세우, 박지로, 테너・평론가 홍일파가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이 학교의 교수진은 훗날 부산음악가

70) 「무인가 학교 진학자는 요주의」, 『부산신문』, 1948.8.18, 2면.

71) 앞서 기술했듯이 식민지시대 운영된 김동춘의 성악 교습소는 신창동 동본원사(東本願寺, 현 대각사)에 소재한 유치원에 위치했다. 김동춘의 성악 교습소와 동국음악학교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불교를 기반으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72) 「남녀학생모집, 동국음악학교」, 『부산신문』, 1949.2.12, 1면.

73) 「기축년 축하」, 『부산신문』, 1949.1.1, 2면.

협회[74]의 결성에 밀도 높게 결합된다. 즉 부산음악전문학교 교수진에 이름을 올린 김점덕, 배도순, 정복갑, 윤이상, 김호민, 홍일파는 부산음악가협회에서 각각 평론부 간사, 기악부 간사, 간사장, 작곡부 간사, 성악부 간사, 총무로 활동한다. 부산음악전문학교 교수진은 당시 부산 음악사회를 주도하는 음악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순음악(純音樂)이라는 동일한 음악적 지향점을 공유하며 밀도 높은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75]

부산음악전문학교의 교수진 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음악인 외에 문인과 연극인, 언론인, 인문학자 들이 결합했다는 점이다. 소설가 김석호・김요산(김정한-필자), 연극인 남상협, 법학자이자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문홍주, 언론인 백대진(부산일보 편집국장 역임-필자)이 그들이다. 이처럼 인접 예술장르와 인문학 분야 교수진을 갖춘 것은 전문음악인이 음악적 기량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대학 체제를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에 비해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1949년 7월 무렵 김학성이 책임자에서 물러나게 된다.[76] 이때 새로운 책임자로 나선 홍일파는 부산음악전문학교의 쇄신을 도모하여 교수진용과 교육과정에 큰 폭의 변화를 단행했다. 우선 전공 영역에서 김학성, 박용식, 윤이상, 변종택, 김호민, 박지로가 물러나고 정복갑, 김점덕, 배도순, 한세우 들의 기존 교수 4명만 잔류했다. 새로운 작곡 교수로 박호재가 초빙되

74) 부산미국공보원이 기획한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회'(1949.9.16~17)를 계기로 1949년 결성되어 부산지역에서 본격적인 실내악 활동을 펼친 순음악(純音樂) 단체다.

75) 남영희, 앞의 논문, 2021.2, 54~56쪽.

76) 「질식상태에 있는 부산악계」, 『음악주보』 84호, 1949.7.25, 1면.

었으며 책임자인 홍일파는 외국어를 담당했다. 교양 영역 역시 대폭 축소되어 기존 교수진에서는 소설가 김석호만 남고 권박영이 새로 초빙되었다.[77] 이러한 쇄신 노력에도 부산음악전문학교 역시 탄탄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1949년 8월 1일~20일까지 야간에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하계음악강습회를 개최했다.[78] 그런데 이 행사를 두고 "유령강습회"였다는 내용의 투서가 게재되었다.[79] 음악학교 운영에 대한 부산음악인들의 의욕과 열망, 그리고 역량은 충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침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밖에 음악전문교육기관으로 신흥대학교 부산예술과를 들 수 있다. "구(旧) 부산음악학교"라 소개되어 있는데,[80] 부산음악전문학교보다 부산음악학교라는 교명이 더 익숙하게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갈삼은 "신흥대학은 현 경희대학의 전신인데 이때 '신흥대학 부산예술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좀 더 추적해 볼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81] 신흥대학교 부산예술과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학교의 분교와 같은 기관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산음악전문학교와 관련 있는 건국학회 및 재단법인 건국학원이 운영한 건국대학 예술과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1950년 건국학회의 3·1절 축하 관련 광고에 따르면, 건국대학 예술과의 소재지는 신창동으로 부산음악전문학교 소재지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82]

---

77) 박호재와 권박영의 생몰연대와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78) 「남녀강습생 모집, 『자유민보』, 1949.7.14, 1면.

79) 「유령음악강습회」, 『음악주보』 86호, 1949.9.20, 8면.

80)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회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49.9.16.~17, 4면.

81) 제갈삼, 위의 책, 74~75쪽.

82) 건국대학은 법정·상경과(부평동), 예술과(신창동), 체육과(거제리)로 구

신흥대학 부산예술과는 음악전문교육기관을 넘어 음악부와 미술부, 교양부로 구성된 예술대학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수진에는 음악부 정복갑, 김점덕, 박용식, 윤이상, 배도순, 한세우, 미술부 박경원, 박성규, 우신출, 김주문, '겸(음악부와 미술부 겸직 교수진-필자)' 김석호, 권박영, 홍일파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83] 음악부 교수진은 부산음악전문학교에 잔류했던 정복갑, 김점덕, 배도순, 한세우를 중심으로 하며 박용식과 윤이상이 새롭게 결합했다. 이 무렵 한세우는 정복갑의 부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김점덕과 결혼한다. 또한 해방 초기 정복갑, 김점덕, 박용식은 모두 조선음악가동맹 부산지부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인적 교분관계를 토대로 강도 높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84] '겸'으로 표시된 교양 영역의 교수진은 부산음악전문학교와 동일하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성되었으며 그밖에 재단법인 건국학원 산하 교육기관으로 건국중학교(범일동), 건국소년학교(문현동), 보명유치원(부평동)을 두었다. 「건국학회-축 3·1절」, 『자유민보』, 1950.3.4, 2면.

83)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연주회 팸플릿』, 1949.9.16~17, 4면.

84) 남영희, 앞의 논문, 2021.2, 16쪽. 정복갑과 박용식은 한국전쟁기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68쪽.

〈표 1〉 해방기 부산 음악전문 고등교육기관

<table>
<tr><td>학교 명칭</td><td colspan="2">부산음악학교</td><td>동국음악학교</td><td colspan="2">부산음악전문학교</td><td>신흥대학교 부산예술과</td></tr>
<tr><td>시기</td><td colspan="2">1948년 4월 개교</td><td>1949년 1월 학생모집</td><td colspan="2">1949년 초 출범</td><td>1949년 9월 학생모집</td></tr>
<tr><td>설립자</td><td colspan="2">김학성</td><td>미상</td><td>김학성</td><td>홍일파</td><td>건국학원(추정)</td></tr>
<tr><td>교수진</td><td colspan="2">미상</td><td>미상</td><td>김점덕, 김학성, 박용식, 배도순, 윤이상, 변종택, 정복갑, 김호민, 한세우, 박지로, 홍일파/음악가
김석호 · 김정한/소설가
남상협/연극인
문홍주/법학자
백대진/언론인</td><td>◦ 성악 정복갑 · 김점덕
◦ 바이올린 배도순
◦ 피아노 한세우
◦ 작곡 박호재
◦ 외국어 홍일파
◦ 기타 김석호 · 권박영</td><td>◦ 음악부: 정복갑, 김점덕, 박용식, 윤이상, 배도순, 한세우
◦ 미술부: 박경원, 박성규, 우신출, 김주문
◦ 겸(兼): 김석호, 권박영, 홍일파</td></tr>
<tr><td rowspan="2">주소</td><td>1948. 2</td><td>1948. 6</td><td rowspan="2">신창동 1가 34
YMBP(불교청년회관)</td><td>1949. 2</td><td>1949. 7</td><td rowspan="2">미상</td></tr>
<tr><td>신창동 1의 34
YMBP 가교사</td><td>부산부 부평동 가교사
건국학회 내
(전화 2804번)</td><td>신창동 1가 34</td><td>부산부 신창동
(전화 2804번)</td></tr>
</table>

수업연한	미상	미상	4년	미상	미상	미상
전공	성악과 피아노과 바이올린과	성악과 바이올린과 작곡과	성악과 바이올린과 피아노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성악과 바이올린과 피아노과 작곡과	음악부 미술부
모집인원	전공별 30명 (주·야간)	1학년 약간명 (주·야간)	본과 약간명	전공별 약간명(주·야간)	전공별 약간명(주·야간)	미상
입학요건	중등학교 졸업 이상	중등학교 졸업 이상, 대학입학 자격시험 합격	본과: 중학교 졸업 이상 별과: 초급중학교 수료 이상	중등학교 졸업 이상	중등학교 졸업 이상(추정)	중등학교 졸업 이상
전형과목	국어, 영어, 실과, 역사	국어, 영어, 사회생활, 인물고사	국어, 영어, 사회생활, 실과, 구술	미상	미상	미상
수업료	미상	미상	500원	미상	미상	미상
비고	◦ 부산음악전문학교로 병합 ◦ 학무국 인가 미취득		◦ 부산음악전문학교로 병합 ◦ 건국학회와 유관	◦ 1949년 7월경, 재정 문제 등으로 책임자 김학성이 인퇴(引退)함.		◦ 구(旧) 부산음악학교 ◦ 건국대학 예술과와 연관성

부산음악학교, 부산음악전문학교, 신흥대학교 부산예술과는 해방기 부산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한 음악전문교육기관들이다. 명칭은 다르지만 김학성이 주도한 부산음악학교의 변전(變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건국학원과 연관성이 높다. 전공 영역은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작곡이었으며, 해방기 부산음악사회의 저명한 음악인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음악뿐만 아니라 전문음악인이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아 대학 체제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모집 광고 외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실제 학교의 운영이나 전공별 세부 커리큘럼, 수강생, 졸업자 들의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전쟁의 발발로 언제 폐교했는지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해방기 부산에서 음악전문교육기관이 민간 차원에서 설립·운영되었다는 점, 부산음악사회를 대표하는 음악가들로 교수진용을 갖추었다는 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부산음악연구소와 음악교육의 대중화

해방 후 부산에서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음악교육 기관은 “할네루야 음악연구소”다.[85] 1945년 11월 5일 창립되었으며, 소장 홍지영[86], 강사 고영일, 김진수로 구성되어 있다. 홍지영은 부산음악전문학교에 관여한 홍일파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그는 남조선여중(현 남성여고) 교사로 알려져 있으며, 해방기에 평론가, 작

85) 김용호 엮음, 『1947년판 예술연감』, 예술신문사, 1947, 137쪽.
86) 홍지영은 남조선여중 교사, 테너, 평론가로 활동한 홍일파와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곡가, 테너로 활동했다.[87] 할네루야 음악연구소에 대한 다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제2회 희망음악회-부산음악가대연주회(1947.12.3)에 테너 홍지영과 "할넬누야 합창단"이 출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88] 이러한 점에서 홍일파를 중심으로 한 할네루야 음악연구소에서는 성악 교육을 실시하고 합창단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민간 교습소로 1945년경 배도순(裵道淳, 1920~2000)[89]이 설립한 부산음악연구소를 들 수 있다. 배도순은 동경고등음악학원 출신으로 바이올린 독주자로 활동하는 한편 부산음악가협회와 부산관현악단에도 관여했다. 특히 실내악 운동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배도순이 부산음악가협회를 기반으로 설립한 부산현악4중주단은 제1바이올린 배도순, 제2바이올린 김광수, 비올라 백경준, 첼로 윤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1950년 2월 21~22일 제1회 연주회를 가졌다. 이 연주회는 해방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현악4중주곡만으로 프로그램을 꾸린 공연이었다. 배도순은 음악다방 문화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문화장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연주회와 음악감상회 개최, 음악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기능했다.

부산음악연구소는 "중도정 부민국민학교 옆"에 위치하였으며, 바이올린, 피아노, 오르간의 3개 전공을 두었다. 특히 부산음악연구소에서는 악기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 악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악기를 배울 수 있었으며, 많은 인원이 모여 합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총 연습실"을 갖추고 있었다.[90] 부산음악연구소에서는 1947

87) 고영일과 김진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88) 헨델(G.F.Händel)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중에서 〈할렐루야(Hallelujah)〉를 연주했다. 『제2회 희망음악회-부산음악가대연주회 팸플릿』, 1947.12.3, 1~3면.

89) 배도순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90) 「(광고) 학생모집」, 『민주중보』, 1947.7.26.

년 9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제1회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음악연구소는 해방 직후인 1945년 무렵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당초 9월 20일 저녁 7시 동광초등학교 강당, 21일 낮 2시와 밤 7시 부산음악연구소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후자는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91] 광고를 보면, 배도순의 지휘로 진행한 이 음악회는 총 40명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으로 부산부 초등교육회, 부산방송국, 부산신문사의 후원을 받았으며, 유료 공연이었다.[92] 이는 부산음악연구소가 사설교육기관이지만 일정한 사회적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출연자 대부분은 부산음악연구소 수강생으로 보이며, 독주 악기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많다. 피아노 독주자로 김정숙, 최무하, 박성규, 우수행, 심근순, 김옥지, 방부원, 바이올린 독주자로 손영준, 김호진, 임우택, 이춘환, 김원복, 전장원, 성악 독창자로 강봉구, 남성 4중창에는 강봉구, 허신, 박성규, 방부원이 출연했다. 그중 피아노 반주와 남성 4중창에 출연한 박성규, 방부원은 기성 음악가 또는 강사진으로 추정된다. 특히 방부원(房富源)은 1958년 음악교수와 교사 12명으로 조직된 합창단 '콜 애오리안'의 멤버로 활동하였으며, 많은 분량의 음악회 팸플릿과 「해방에서 5 · 16까지의 부산음악계」라는 회고를 남겼다.[93]

부산음악연구소는 음악교습소였지만 배도순의 탁월한 실력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음악전문교육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자체적으로 혼성합창단과 현악합주단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기반을

91) 「부산음악연구소 발표음악회 개최」, 『부산신문』, 1947.9.19, 2면. 21일 공연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20일부 광고에 장소 부산음악연구소 취소", 「(광고) 제1회 음악회」, 『부산신문』, 1947.9.21, 1면; 「(광고) 제1회 음악회」, 『부산신문』, 1947.9.20, 1면.

92) 「부산음악연구소 발표음악회 개최」, 『부산신문』, 1947.9.19, 2면.

93) 방부원, 「해방에서 5 · 16까지의 부산음악계」, 『부산 원로음악가 연주회 팸플릿』, 악천회 주최, 1985.6.11, 부산산업대학교 콘서트홀, 13쪽.

확립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배도순은 교육활동과 현악합주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갔다. 1958년 서울시향에 입단한 그는 1960년 서울에서 고려음악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이때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지도하기도 했다. 또한 1962년부터 6년간 경성대학교의 전신 한성여대에서 강사로 일하며 약 50명으로 구성된 한성여대 현악합주단을 조직하여 마산, 진주, 진해, 밀양, 울산 등지로 순회연주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4]

한편, 부산 YMCA에서는 경상남도 학무국의 후원으로 1949년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제1회 종합예술대학 강좌를 개최했다.[95] 영역은 문학부, 음악부, 미술부, 무용부, 연예부의 5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외(科外)로 종교와 예술, 종합예술론을 다루었다. 각 영역별 세부 과목과 강사진으로는 문학부에 평론작법 염주용, 시가작법 김수돈, 희곡작법 이주홍, 소설작법 김석호, 문장일반 김정한, 미술부에 서양화 양달석, 동양화 박성규, 생활과 미술 우신출, 아동화 김원갑, 이조문인화 박경원, 무용부에 예술무용 박용호, 교육무용 박사랑, 연예부에 영화일반 양철, 연예일반 남상협이 참여했다. 음악부는 독창가요 김점덕, 이탈리아 가요 김호민, 합창곡 김수현(금수현-필자), 가극 정복갑, 관현악 박용식, 피아노곡 강수범, 현악 김학성, 취주악 변종택, 협주악 홍일파, 작곡과 연주 윤이상으로 구성되었다.[96] 즉 독창, 이탈리아 가곡, 합창, 오페라 들의 성악 분야, 관현악, 피아노, 현악, 관악, 협주곡 들의 기악 분야, 그리고 작곡까지 포함하는 구성으로 음악의 전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처럼 폭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갈래별 세부 주제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기 부산음악인의 역량을 가

94) 제갈삼, 앞의 책, 2004, 423쪽.
95) 「(광고)」, 『민주중보』, 1949.1.13, 2면.
96) 금수현과 피아니스트 강수범을 제외한 전원이 1949년 초의 부산음악전문학교 교수진이다.

늠할 수 있다.

이 강좌에는 해방 직후 부산지역 좌익 문화전선의 핵심인물인 김정한을 비롯하여 염주용, 이주홍, 양달석, 박용식, 김점덕, 정복갑 들의 주로 좌익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뿐만 아니라 김수돈, 금수현과 같은 우익 계열 예술인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1949년 당시는 우익을 중심으로 예술계 재편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하지만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다양한 갈래의 문화예술인들이 결집하고 있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의 교양교육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부산사범학교의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 운영과 음악교육의 내실화

해방기에는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매우 컸으며, 의무교육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교육열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교육 현실은 그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당시 초등교사의 1/3, 중등교사의 2/3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교사들은 해방 직후 교단을 떠나야 했다.[97] 하지만 교육행정 체계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들을 대체할 교사를 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음악교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무국에서는 사범학교를 증설하고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단기 양성과정, 속성과, 중등교원양성소 들의 비정규과정까지 동원하여 음악교사를 긴급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초등교사 하기 음악강습회와 같은 교사 재교육 사업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98] 부산에는 일본 유학을 통해 정식

97) 정태수 편, 앞의 책, 170쪽.

98) 1947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초등학교 음악교사 대상 하계음악학교에는 전국에서 301명의 교사가 참가하였으며 경남지역에서도 38명이

음악교육을 받은 전문음악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으며 각 학교 단위에서 음악인들 간 인맥을 통해 음악교사를 추천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 학교현장의 음악교사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었다.[99] 그럼에도 음악교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현장의 수요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부산사범학교는 초등학교 교원 수급을 위해 1946년 7월 2일 신설된 기관이다. 그런데 부산사범학교에서는 1949년 2월 "자격 부여 야간부"를 설치하면서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를 두었다.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교과에만 이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① 부산사범 안에 둔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는 다음과 같은 강사진용과 추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강사 윤인구(철학), 한영석(교육), 정신득(국문학), 조민하(외국어), 금수현(음악사), 윤이상(통론), 정복갑(성악), 김호민(성악), 김창배(합창), 女 박지로(피아노), 김순열(피아노, 수시), 배도순(현악)

추가 합격자 정우영, 조양제, 전혜금, 전순남, 엄상향, 안향애, 김종헌, 우수향, 박종열

그리고 중학교 6년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와 4년 졸업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 가진 자로는 실력이 있으면 추가시험을 볼 수 있다 한다.[100]

참여했다. 8명의 교수진이 화성학, 성악, 지휘, 국악, 미국음악의 역사, 감상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기초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성휘, 「해방공간의 음악교육적 환경에 관한 소고」, 『음악평론』 11집, 4쪽.

99) 금수현, 앞의 책, 96쪽.

100) 「중등음악교사양성과」, 『음악주보』 77호, 1949.3.25, 1면.

② 음악과 등 교사 양성과는 부산사범 안에 부설된 것인데 야간을 이용하여 매일 착실히 공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3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20명이 매일 출석한다. 그중에는 중등교사가 안 될 사람도 있다는데 장족의 진보가 있는 모양이다. 지금 지방 각 중학교에서는 많은 음악 교사가 부족하며 특히 성악, 피아노를 겸한 사람이 적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앞길의 기대되는 바 크다.[101]

이 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이며, 입학자격은 "현 국민학교 교사 또는 중학 6년 졸업자"로 수료 후 특전으로 중등학교 음악교사 자격이 주어졌다.[102] 그런데 인용문 ①에 따르면 중학교 6년 재학 이상의 학력 또는 4년 졸업자[103]로 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추가로 부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을 경우 입학할 수 있었다. 추가시험 합격자에 이름을 올린 전혜금은 금수현의 부인이며, 정우영은 1948년 윤이상이 부산사범학교에서 병가를 냈을 당시 후임으로 부임한 피아니스트다.[104] 이들은 새롭게 추가된 지원 자격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금수현은 부산사범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 과정의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의 개설과목은 음악사와 음악통론을 비롯하여 성악, 합창, 피아노, 현악들의 음악 전문영역, 그리고 철학, 교육학, 국사학, 국어들의 폭넓은 교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으로는 당시 부산사범학교에 재직 중이던 금수현과 윤이상[105]을 비롯하여 정복

101) 「질식상태에 있는 부산악계」, 『음악주보』 84호, 1949.7.25. 1면
102) 「(광고) 자격부여 야간부 설치, 부산사범학교」, 『부산신문』, 1949.2.16, 1면.
103) 이른바 교육의 긴급조치기(1945~1946)의 학제에 따른 것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뜻한다.
104) 정우영은 금수현과 이웃이기도 했다. 금수현, 앞의 책, 117쪽.

갑, 김호민, 김창배, 박지로, 김순열,[106] 배도순 들의 당시 부산음악계를 주도한 음악인이 다수 포진하였다. 또한 부산사범학교 교장을 지냈던 윤인구를 비롯한 국어, 국사, 교육학분야 인사들을 규합하였다.

인용문 ②에 따르면, 이 과정은 "야간" 과정이며 "30명 정도"를 선발하였다. 그중 "20명 정도"가 수강하면서 "장족의 진보"를 이루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등 음악교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음악전문교육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알 수 있다. 부산사범학교 중등음악교사 양성소에서 정규과정과 별개로 진행한 화성학 강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사는 윤이상이었으며, 1949년 5월 3일부터 7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9시에 수업을 진행했다. 지원 자격은 따로 없었지만 30명 정원에 월 400원의 강습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했다.[107]

부산에서 중등교사 양성 정규과정은 1955년 설립한 국립부산사범대학이 처음이며 이때 개설된 과목은 수학, 과학, 가정, 음악, 미술, 체육 6과목이었다.[108] 그러나 음악교과만큼은 이보다 앞선 1949년 부산사범학교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를 통해 중등교사 자격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다. 해방기 문교부의 중학교 교사 자격 규정에 의하면 정규교사 외에 조건부교사 또는 준교사를 두어 방학기간 문교부 강습 120시간을 이수하면 교사가 될 수 있었다.[109] 이

105) 부산교육대학교60년사발간위원회,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교육대학교, 2006, 67쪽.

106) "수시"라고 표기되어 있어 상근 교수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7) 「(광고) 화성학 청강생 모집, 중등음악교사양성소」, 『민주중보』, 1949.5.3, 1면.

108) 「연혁」, 부산교육대학교60년사발간위원회, 앞의 책.

109) 『음악주보』, 83호, 1949.7.11. 부산에서도 1949년 3월 21일부터 5일간 이승학, 김형근, 나운영을 강사로 한 음악강습회가 동광국민학교에서

와 달리 부산사범학교 중등 음악교사 양성과에서는 정식 중등교사 자격이 특전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운용은 당시 교육계의 혼란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특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갖춘 음악인들이 중등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과 중등학교 현장의 음악교사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밖에 『경상남도지』에는 "교원의 질적 향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47년 "부산음악교원양성소"가 있었는데, "금수현, 윤이상, 김창배" 등의 지도로 "3회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110]

4.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서양음악은 문화와 교양, 계몽과 근대지향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표상으로 인식되었다. 음악교육 역시 다양한 목적과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서양음악 전문교육기관에 관한 연구는 근대계몽기에 설립·운영된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런데도 다른 학교 및 민간 차원에서 음악인이 주도한 음악전문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로서의 학교 음악교육을 제외하고 근대 한국의 음악전문교육의 전통을 개관하고, 그 맥락에서 해방기 부산

열려 초등교사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음악주보』, 78호, 1949.4.18.

110)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1110쪽. 1949년 초 부산사범학교 중등음악교사 양성과의 잘못된 기록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의 음악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지향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산은 개항지로 서양음악을 비롯한 근대문물의 수혜를 빠르게 입은 지역이다. 식민지시대 부산에는 일본 음악인과 일본 유학을 다녀 온 음악인들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이 존재했다. 이러한 전통 위에 해방기 부산에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음악인들이 다수 정착하여 음악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음악협회와 연주단체 결성, 음악회 개최, 매체 발간, 창작음악극 제작 들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쳤다. 음악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김학성이 1948년 4월 개교한 부산음악학교는 동국음악학교와 병합, 부산음악전문학교, 신흥대학교 부산예술과 등 여러 모습으로 변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 부산음악사회를 주도한 인물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했으며, 음악 외에도 문학과 연극 들의 인접장르와도 결합해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전공은 성악과, 작곡과, 바이올린, 피아노 등 기악과/기악과(바이올린, 피아노 등)로 다양했으며 본과와 예과를 두어 단계별 교육을 도모했다. 수업연한은 4년이며, 본과 입학 자격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입학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음악전문교육기관으로는 배도순이 운영한 부산음악연구소가 대표적이다. 해방 직후인 1945년 무렵 설립했으며, 바이올린, 피아노, 오르간의 3개 전공을 두었다. 악기와 개인연습실, 합주실 들의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며, 음악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밖에 YMCA 종합예술대학 강좌를 2주 정도 단기간 운영하기도 했으며, 지역에서 음악교양교육의 확산에도 기여했다.

부산에서는 1949년 2월 부산사범학교에 중등 음악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중등음악교사 양성과가 설치·운영되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중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며, 유독 음악 교과에만 이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배출함으로써 해방기의 중등 음악교사 부족 문제의 신속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음악전문교육의 수혜자가 확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기 부산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음악전문교육기관들이 설립·운영되어 음악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지향하는 한편, 음악 교양교육의 확산과 중등 음악교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한국전쟁의 발발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에 다양한 목적의 음악전문교육 수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방 후 설립된 부산음악학교는 서울음악전문학교의 설립 시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방기 부산 음악사회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부산음악사에서 혼란스럽게 거론되었던 여러 기관의 명칭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으며, 전후 음악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로서의 해방기 음악전문교육기관의 실체와 음악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가음악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지역의 음악활동뿐만 아니라 해방기 음악전문교육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예술학원의 무도(舞蹈) 음악 6월 2일에 개회」, 『동아일보』, 1923.6.1, 3면.

「근화학원 확장, 음악과도 신설」, 『동아일보』, 1924.3.14, 2면.
「음악과 노어 강습소를 신설, 임시사무소를 관수동에」, 『조선일보』, 1924.4.11, 3면.
「연악회관 준공, 오늘부터 개학」, 『동아일보』, 1924.11.3, 5면.
「연구회관 신축」, 『조선일보』, 1924.11.4, 3면.
「연악회 학생모집」, 『조선일보』, 1925.4.2, 2면.
「조선에 처음 생긴 리화녀자전문학교」, 『조선일보』, 1925.4.10, 3면.
「근화여교 29일부로 인가」, 『매일신보』, 1925.8.30, 2면.
「연악회 확장, 세 곳에 지부 설치」, 『동아일보』, 1929.9.4, 2면.
「홍김 양씨를 위임 연악회를 속개」, 『동아일보』, 1931.9.2, 4면.
「釜山聯合青年團音樂部, 更生に決定」, 『조선신문』, 1935.12.18, 3면.
「釜山聯合青年團音樂部愈よ復活, 斯界の權威宇都宮氏を迎へ八日第一回練習會」, 『조선신문』, 1936.2.8, 5면.
「음악전문학원 경기도에서 정식 인가」, 『동아일보』, 1938.2.19, 2면.
「경성음악전문학원 수 정식 인가」, 『조선일보』, 1938.2.22, 6면.
「우리 음악부흥 음악학교 창립」, 『동아일보』, 1945.12.13, 2면.
「최초의 음악전문교 2월 1일부터 개교」, 『동아일보』, 1946.1.6, 2면.
「부산음악연구소 발표음악회 개최」, 『부산신문』, 1947.9.19, 2면.
『제2회 희망음악회-부산음악가대연주회 팸플릿』, 1947.12.3.
「서울음악전문학교 5개과를 신설하고 발족」, 『한성일보』, 1948.2.4, 2면.
「남녀학생모집」, 『부산신문』, 1948.3.7, 2면.
「학교소식」, 『문예신문』 56호, 1948.5.3, 2면.
『음악주보』 62호, 1948.6.5, 2면.
「무인가 학교 진학자는 요주의」, 『부산신문』, 1948.8.18, 2면.
「기축년 축하」, 『부산신문』, 1949.1.1, 2면.
「음악전문학교 교비생(校費生)을 모집」, 『조선중앙일보(유해붕)』, 1949.3.3, 2면.
「중등음악교사양성과」, 『음악주보』 77호, 1949.3.25, 1면.
「김학성씨 제금독주회」, 『민주중보』, 1949.7.14, 2면.
「질식상태에 있는 부산악계」, 『음악주보』 84호, 1949.7.25, 1면.
『실내악을 주로 한 음악회 팸플릿』, 부산미국공보원, 1949.9.16~17.
「유령음악강습회」, 『음악주보』 86호, 1949.9.20, 8면.
「(광고) 서울음악전문학교」, 『한성일보』, 1949.12.1, 2면.
계정식, 「악인 김재훈을 추모하며」, 『조선일보』, 1958.1.17, 4면.
방부원, 「해방에서 5·16까지의 부산음악계」, 『부산 원로음악가 연주회 팸플릿』, 악천회 주최, 부산산업대학교 콘서트홀, 1985.6.11.

박형태, 「음악계의 뿌리와 맥」, 『산여울』 제7집, 부산전문대학, 1986, 35~38쪽.
이상만, 「한국음악백년, 일화로 엮어본 이면사(43)-김재훈의 '경성음악전문학원'」, 『경향신문』, 1986.9.11, 10면.

2. 논문

고성휘, 「해방공간의 음악교육적 환경에 관한 소고」, 『음악평론』 11집, 5~22쪽.
김윤정 · 서치상 · 이미나, 「개항 이후 일본불교의 침투에 따른 사원의 건립과 건축 특성 개관」, 『건축역사연구』 제21-2호, 2012, 53~74쪽.
남영희,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 『인문과학』 제122집, 2021.8, 199~243쪽.
남영희, 「해방기 김학성의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과 노래의 정전화」, 『한국문학논총』 제88집, 2021.8, 89~136쪽.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21.2.
노동은, 「'경성음악전문학원'은 어떤 학교이었나?」, 『음악과 민족』 19집, 2000, 122~134쪽.
노영숙, 「개화기 선교사들의 기독교 교육이 근대 교육문화에 기여한 교육적 의의」, 『기독교교육논총』 제34집, 2013, 349~388쪽.
박은경, 「한국 최초의 민간음악교육기관 조선정악전습소 연구」, 『음악과 민족』 21집, 2001, 161~182쪽.
안미자, 「해방 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과과정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제25집, 2001, 111~146쪽.
이상규,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 전래와 교육 · 의료활동(1880~1910)」, 『항도부산』 제11호, 1994, 170~221쪽.
조윤영, 「음악을 통해 근대여성을 꿈꾸다」, 『인문과학연구』 27집, 2018, 131~154쪽.

3. 단행본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김용호 엮음, 『1947년판 예술연감』, 예술신문사, 1947.
노동은,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주), 2010.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민경찬, 『숭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7.
부산교육대학교60년사발간위원회, 『부산교육대학교 60년사: 1946-2006』, 부산교육대학교, 200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1945~1948)』 상, 홍지원, 1992.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투고일: 2021.10.31 심사완료일: 2021.12.20. 게재확정일: 2021.12.22)

남영희(제1저자)
소속: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번호: 051-510-1611
전자우편: eunice@pusan.ac.kr

이순욱(교신저자)
소속: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번호: 051-510-2604
전자우편: enfb@pusan.ac.kr

[Abstract]

A Study on Music Education Institution and Music Education in Busa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Nam, Young-hee · Lee, Soon-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ofessional musician educating institutes in Busa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s a result of examining empirical data such as articles, advertisements and concert pamphlets publish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school materials, and memoirs written by local elder musicians, it was confirmed that professional musician educating institutes of various types and purposes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while various music activities were dynamically developed based on excellent human resources during the liberation in Busan. Although these institutes could not be sustained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t was possible to gauge the passion and capability of Busan musicians to nurture the next generation of musicians through these institutions.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discover the meaning of professional musician educating activitie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s a basis for driving the development of postwar music education.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was able to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about local music activities that had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Key words : Liberation Period, Music Education, Busan Music College, Busan Music Institute, Special Course for Training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 in Busan Elementary Teachers' School, Kim Hak-Sung, Bae Doh-Soon